



간호대학생의 대인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김희숙¹⁾ · 박완주²⁾ · 하태희³⁾

서론

연구의 필요성

대학생들은 내적으로 사회적 독립, 경제적 자립, 인생관의 확립 등과 같은 당면한 문제를 통하여 자기주체성을 형성해 나가야 하는 시기를 맞고 있다. 또한 이 시기에 주변의 사람들 즉, 친구, 동료, 연인 및 가족 등과 친밀한 인간관계를 형성하는 것은 중요한 발달과제(권석만, 1995)이나 친밀하고 효율적인 대인관계를 형성하는 능력을 개발하지 못하면 고립감과 공허감 등의 심리적 혼란을 경험하게 된다(전은희, 1997).

특히 우리나라 학생들은 입시위주의 교육, 주입식 교육방식, 전통적·유교적 가치관과 현대 물질문명 및 서구적 사고방식간의 차이로 인한 혼란 등으로 인해 자기주체성을 형성할 기회를 박탈당함으로써 대학 입학 후에도 자기주체성 문제와 이로 인해 대인관계에서 많은 갈등과 좌절을 겪게 된다(김기정, 이정희, 1998).

이정연(2000)은 대학생들의 대인관계에 대해 조사한 결과 전체 응답자의 33.1%정도가 대인관계에서 어려움을 느끼거나 몇몇 사람을 제외하고는 폭넓은 대인관계를 기피하고 있으며 특히 이성관계보다는 친구관계에서 어려움을 느끼는 정도가 더 크다고 하였으며, 서봉연 등(1994)은 부적응적인 대인관계는 대학생의 자아정체감과 인격발달에 큰 지장을 주게 되어 학업저하, 정신건강 문제 등 전반적인 대학생활에의 적응에 있어서 여러 가지 문제들을 파생시킬 수 있다고 보고하였다.

이처럼 대학생시기에 있어 대인관계의 형성은 매우 중요하

며 이때 형성된 대인관계가 이후 일생에 지대한 영향을 끼칠 수 있기 때문에 만족스러운 대인관계 형성에 대한 새로운 인식이 절실히 요구된다.

간호대학생들은 타 학과 학생들에 비해 과중한 학업뿐 아니라 임상실습에 입해야 하므로 환자간호에 대한 무거운 책임감과 지식 및 경험의 부족, 엄격한 행동, 규범 등 적용에 많은 어려움과 스트레스를 경험하게 된다(조희, 1992). 하지만 훌륭한 전문직업인으로서 간호사가 되기 위해서는 본질적으로 자신을 긍정적으로 보고, 자기 자신과 세계를 정확하고 현실적으로 보아야 하며(Kelly, 1962), 역동적이며 능동적으로 자신이 처해진 상황에서 생기는 여러 가지 스트레스에 건설적으로 대처함으로써 원만한 대인관계를 유지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건강문제를 가진 인간을 돕는 행위의 학문인 간호학을 하는 간호대학생들이 임상현장에서 치료적인 관계를 통해 돕는 사람(helper)으로서의 기능을 잘 수행하기 위해서는 자신에 대한 인식과 이해가 먼저 요구된다. 자신에 대한 인식과 이해가 부족하고 자신에 대해 부정적으로 인식하게 되면 자신의 말과 행동에 일관성이 결여되고 상대방으로 하여금 자신에 대한 신뢰감을 발전시키지 못하게 되어 관계를 지속해 나갈 수 없게 되기 때문에 긍정적인 자아개념이 대인관계 형성에 중요한 결정적인 요인이 된다고 할 수 있다(도복늬 외, 1997).

이윤조(2002)는 자기에적 성격 특성과 자기효능감 및 대학생활적응 간에는 정적인 상관관계가 있다고 보고하였다. 자기효능감은 자신의 능력에 대한 판단이라는 점에서 자기관련 인지의 중요한 부분이 되지만 자기에 성향자들은 상당히 자

주요어 : 간호대학생, 대인관계

1) 경북대학교 간호대학 조교수(교신저자 E-mail: hskim8879@knu.ac.kr)
 2) 경북대학교 간호학과 박사수료, 3) 경북대학교 간호학과 박사과정

기중심적인 자기관련 인지를 가지고 있음이 연구를 통해 밝혀지고 있다(Emmons, 1987; Raskin & Shaw, 1988). Kohut (1984)는 자기에를 정상적이고 성숙한 형태로 변화 가능한 것으로 보았으며, 최근 연구들 또한 자기에적 특성 안에는 적응적이고 긍정적인 측면의 자기에와 부적응적이고 부정적인 측면의 자기에가 공존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Davis, Claridge & Brewer, 1996). 이처럼 상반된 견해가 제시되고 있는 자기에적 성격이 대인관계에 있어서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재 규명이 필요하다.

그러나 현재까지는 간호대학생의 대인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프로그램의 효과에 대한 연구는 많지만(김성남, 2004; 권윤희, 2002; 전진이, 1997; 남은순, 1995), 대인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확인한 연구는 거의 없는 실정이다. 따라서 개인의 내적인 대처자원의 핵심인 자신과 타인과 사물에 대해 어떻게 느끼는가 하는 지각향성과 더불어 긍정적 신념, 사회적 기술과 관련되는 자기효능감, 자기에가 대인관계에 어떠한 관련이 있는지 확인할 필요성이 있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간호대학생들의 대인관계 정도와 대인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해봄으로써 간호직에 종사할 간호대학생들에게 긍정적으로 자신과 타인을 지각하고, 자신을 진정으로 아낄 줄 알며, 원만하고 성공적인 대인관계 구축에 필요한 기초 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연구의 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D시 일개 대학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대인관계의 정도와 대인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 대상자의 대인관계 정도를 확인한다.
- 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에 따른 대인관계 차이를 파악한다.
- 대상자의 대인관계와 관련변인과의 상관관계를 파악한다.
- 대상자의 대인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한다.

용어 정의

● 지각향성(Perceptual orientation)

인간이 자신과 타인과 사물에 대해 어떻게 느끼는가 하는 내용의 경향성을 말하며(최정훈, 1979). 본 연구에서는 지각심리학의 이론적 근거를 바탕으로 Usher가 작성한 지각향성의 12가지 측정기준에 의거하여 최정훈(1979)에 의해 표준화된 학생용 지각향성검사로 측정된 점수를 말한다.

● 자기효능감(Self-efficacy)

어떤 결과를 얻고자 하는 행동을 성공적으로 조직하고 수행해 낼 수 있는 개인의 능력에 대한 신념으로(Bandura, 1977), Bandura의 자기효능감 이론의 개념에 입각하여 Sherer와 Maddux(1982)가 제작한 자기효능감 척도(Self-Efficacy Scale : SES)를 홍혜영(1995)이 번안한 것으로 측정된 점수를 말한다.

● 자기에(Narcissism)

우월감, 거만한 행동, 자기를 향한 타인의 관심과 경외에 대한 끊임없는 욕구가 반영되어 있는 고양된 자기 개념을 말하며(Bogart, Benetsch, & Pavlovic, 2004), 본 연구에서는 황순택(1995)이 DSM-IV(American Psychiatric Association, 1994)의 진단 준거를 보완하여 성격장애를 측정하는 자기보고형 검사로 개발한 척도로 측정된 점수를 말한다.

● 대인관계(Interpersonal relationship)

한 개인이 타인에 대해 어떤 생각과 느낌을 가지고 반응하는가, 어떻게 타인을 지각하고 그에게 어떤 행위를 하는가, 타인에게 무엇을 기대하는가 등에 대한 심리적 지향성을 말하며(Heider, 1964), 본 연구에서는 Guerny의 인간관계 변화 척도(Relationship Change Scale)를 문선모(1980)가 우리 실정에 맞게 번안한 대인관계 검사 척도로 측정된 점수를 말한다.

연구 방법

연구 설계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의 대인관계 정도와 대인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기 위한 서술적 조사연구이다.

연구대상 및 자료수집

본 연구의 대상자는 2005년 10월 8일부터 2006년 6월 15일 까지 D시의 일개 간호대학에 재학 중인 2학년, 3학년, 4학년 학생으로 대상자에게 연구의 취지를 설명하고 연구에 대한 동의를 얻은 후 설문지를 배부하였으며 학생 스스로 응답하도록 설명을 해준 뒤 질문지를 작성하도록 하였다. 연구대상의 선정은 설문지 내용을 이해하고 연구 참여에 동의한 자를 대상으로 편의 표집 하였다. 총 응답자 180명 중 응답이 불완전한 14명을 제외한 166명을 최종 대상으로 하였다.

연구 도구

● 지각향성

지각 심리학의 이론적 근거를 바탕으로 Usher가 작성한 지각향성의 12가지 측정기준에 의거하여 최정훈(1979)에 의해 표준화된 40문항으로 구성된 학생용 지각향성검사를 사용하였다. 이는 타인에 대한 지각을 묻는 20문항과 자기에 대한 지각을 묻는 20문항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본 연구에서는 자기지각영역에서 신뢰도를 저해하는 4문항을 제거한 36문항을 이용하였다. 각 문항은 1점에서 5점까지 Likert 척도로 총점은 36점-180점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지각향성이 높은 것을 의미하며, 본 연구에서의 Cronbach's α 는 자기지각향성.78, 타인지각향성 .84이었다.

● 자기효능감

Sherer와 Maddux(1982)가 Bandura의 자기효능감 이론의 개념에 입각하여 제작한 것을 홍혜영(1995)이 번안한 것으로 23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이윤조, 2002). 성취자기효능감 17문항, 사회자기효능감 6문항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1점에서 5점까지 5점의 Likert 척도로 총점은 23-105점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자기효능감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의 Cronbach's α 는 성취자기효능감 .88, 사회자기효능감 .79였다.

● 자기에

황순택(1995)이 DSM-IV(American Psychiatric Association, 1994)의 진단 준거를 보완하여 성격장애를 측정하는 자기보고형 검사로 개발한 척도 중 자기에적 성격 장애에 대한 것으로, 다른 성격장애와 공유하고 있는 특성도 자기에적 성격장애 진단 준거에 포함시킨 공유척도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총 18문항이며 각 문항은 1점에서 5점까지 5점의 Likert 척도로 평정하게 되어 있다. 점수 범위는 18점에서 90점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자기에적 성격장애에 가까운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이 도구의 신뢰도를 검정한 결과 Cronbach's α 는 .82였다.

● 대인관계

Guerney(1977)의 인간관계 변화 척도(Relationship Change Scale)를 문선모(1980)가 번안하고 양명희(2002)가 수정한 25문항의 대인관계 검사 척도로 본 연구에서는 신뢰도를 저해하는 3문항을 제거하여 만족감 4문항, 의사소통 3문항, 신뢰감 3문항, 친근감 3문항, 민감성 2문항, 개방성 3문항, 이해성 4문항으로 총 22문항을 이용하였다. 각 문항은 1점에서 5점까지 5점의 Likert 척도로 총점은 22-110점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대인관계 적응이 높고, 점수가 낮을수록 대인관계 적응이 낮다. 본 연구에서 이 도구의 신뢰도를 검정한 결과 하위영역별 Cronbach's α 는 각각 .79, .60, .46, .58, .61, .62, .74 이었다.

자료 분석 방법

수집된 자료는 SPSS Window version 12.0을 사용하여 다음과 같이 분석하였다. 대상자의 지각향성, 자기효능감, 자기에 및 대인관계는 기술통계방법으로 산출하였고 일반적 특성에 따른 대인관계 정도는 t-test와 one-way ANOVA를 사용하여 분석하였으며 추후검정으로는 Scheffe' test를 실시하였다. 대인관계와 관련변수 간의 관계는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로 분석하였으며 대인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Stepwise multiple regression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Cronbach's alpha계수를 통해 도구의 신뢰도 검정을 실시하였다.

연구 결과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본 연구에 참여한 대상자는 여학생이 전체의 93.4%였고 학년별로는 2학년 35.5%, 4학년 35.5%, 3학년 29.0% 순이었다. 동거형태는 가족과 함께하는 경우가 88.0%이었으며 거주형태는 자기 집에 거주하는 대상자가 75.3%로 대부분이었다. 월 평균 용돈은 21-30만원이 42.8%, 20만원 이하 42.7%, 30만원 이상 14.5%였으며, 친구의 수는 보통이다 51.8%, 적은 편이다 38.6%, 많은 편이다 9.6% 순이었다. 스스로 지각하는 건강상태에서는 건강하다 42.1%, 보통이다 38.6%, 허약하다 19.3% 순으로 나타났다.

대상자의 집안에서의 활동은 컴퓨터나 인터넷이 32.2%, TV나 라디오 28.7%, 가족과의 대화 12.6%, 집안일 10.3% 순으로 나타났다. 여가활동에 대한 정보획득은 인터넷에서 41.8%, 친구로부터 24.2%, TV나 라디오 19.1%, 신문 잡지 8.0% 순이었다. 그리고 여가활동은 감상이 33.9%, 오락 28.0%, 교양 14.2%, 스포츠 14.1%, 관광 9.8% 순으로 나타났다<Table 1>.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subjects (N=166)

Characteristics	N	%
Sex	Male	11 6.6
	Female	155 93.4
Grade	Sophomore	59 35.5
	Junior	48 29.0
	Senior	59 35.5
Living arrangement	Living with family	146 88.0
	Other	20 12.0
Monthly allowance (10 thousands won)	≤20	71 42.7
	21-30	71 42.8
	31≤	24 14.5
Friends	Few	64 38.6
	Average	86 51.8
	Many	16 9.6

<Table 1> continued (N=166)

Characteristics		N	%
Self-perception to health status	Weak	32	19.3
	Normal	64	38.6
	Good	70	42.1
House activity (double answers)	Nap time	25	7.3
	Tv or radio	98	28.7
	Newspaper, magazine	8	2.2
	House chore	35	10.3
	Conversation with family	43	12.6
	Computer, internet	110	32.2
	Telephone use	14	4.1
	Other	9	2.6
Acquire information about leisure activity (double answers)	Tv or radio	64	19.1
	Newspaper, magazine	27	8.0
	Internet	140	41.8
	Family	15	4.5
	Friend	81	24.2
Leisure activity (double answers)	Public institution(network)	3	0.9
	Resort facility	5	1.5
	Sports	55	14.1
	Cultivate one's mind	55	14.2
	Tour	38	9.8
	Recreation, pastime	109	28.0
	Enjoy listening or watching	132	33.9

대인관계

대상자의 대인관계는 전체 평균이 77.01(±7.77)점이었고 만족감 평균 13.93(±2.08), 의사소통 평균 10.24(±1.47), 신뢰감 평균 10.51(±1.40), 친근감 평균 11.02(±1.47), 민감성 평균 6.96(±1.21), 개방성 평균 10.11(±1.77), 이해성 평균 14.21(±1.79)로 나타났다<Table 2>.

<Table 2> Degree of interpersonal relationship (N=166)

Variables	M	SD	Min	Max
Satisfaction	13.93	2.08	7	18
Communication	10.24	1.47	6	13
Trust	10.51	1.40	6	14
Interpersonal relationship	11.02	1.47	7	14
Sensitivity	6.96	1.21	3	10
Openness	10.11	1.77	6	14
Understanding	14.21	1.79	7	19
Total	77.01	7.77	51	95

일반적 특성에 따른 대인관계

일반적 특성에 따른 대인관계 정도는 친구 수(F=13.84, p=.000), 동거형태(t=2.77, p=.006), 학년(F=4.82, p=.009), 용돈(F=4.77, p=.010), 건강상태(F=3.62, p=.029)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대인관계의 하위영역인 만족감에서는 친구 수(F=7.39, p=.001), 건강상태(F=4.32, p=.015)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었으며, 의사소통 영역에서는 친구 수(F=10.06, p=.000), 학년(F=6.21, p=.003), 그리고 동거형태(t=2.43, p=.016)에서, 친근감 영역에 있어서는 친구 수(F=8.44, p=.000)와 용돈(3.56, p=.031)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민감성 영역은 동거형태(t=2.87, p=.005)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개방성 영역에 있어서는 친구 수(F=12.57, p=.000), 건강상태(F=5.83, p=.004), 용돈(F=3.19, p=.044)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이해성 영역에서는 동거형태(t=2.89, p=.004), 친구 수(F=3.85, p=.023)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으나, 신뢰감 영역에 있어서는 일반적 특성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Table 3>.

<Table 3> Comparison of interpersonal relationship according to general characteristics (N=166)

Characteristics		Interpersonal Relationship															
		Satisfaction				Communication				Trust				Intimacy			
		M	SD	t/F	p Scheffe	M	SD	t/F	p Scheffe	M	SD	t/F	p Scheffe	M	SD	t/F	p Scheffe
Living arrangement	With Family	14.01	2.04	1.33	.185	10.34	1.43	2.43	.016	10.55	1.41	.89	.374	11.09	1.42	1.55	.124
	Other	13.35	2.32			9.50	1.64			10.25	1.29			10.55	1.73		
Grade	Sophomore	13.61	2.23	2.90	.058	10.22	1.52	6.21	.003 b>a	10.64	1.28	2.04	.133	10.83	1.49	2.75	.067
	Junior	14.52	1.71			10.79	1.29			10.71	1.66			10.88	1.42		
	Senior	13.76	2.12			9.81	1.44			10.22	1.25			10.88	1.42		
Monthly allowance (10 thousands won)	≤20	13.80	2.03	2.74	.068	10.10	1.48	2.36	.097	10.54	1.50	1.49	.230	10.93	1.58	3.56	.031 c>b
	21-30	13.75	2.16			10.18	1.52			10.35	1.29			10.87	1.45		
	31≤	14.83	1.81			10.83	1.20			10.92	1.38			11.75	0.90		
Friends	Few	13.25	2.22	7.39	.001 c>a	9.73	1.49	10.06	.000 c>a	10.33	1.26	2.13	.123	10.61	1.45	8.44	.000 c>a
	Average	14.21	1.89			10.41	1.35			10.53	1.49			11.12	1.43		
	Many	15.13	1.63			11.38	1.26			11.13	1.31			12.19	0.98		
Self-perception to health status	Weak	13.53	2.38	4.32	.015 c>a,b	9.94	1.58	1.19	.308	10.25	1.11	2.65	.074	10.72	1.35	2.51	.085
	Normal	13.53	1.85			10.20	1.38			10.33	1.48			10.86	1.59		
	Good	14.47	2.03			10.41	1.50			10.80	1.41			11.31	1.37		

<Table 3> Comparison of Interpersonal Relationship according to general characteristics(continued) (N=166)

Characteristics	Interpersonal Relationship																
	Sensitivity				Openness				Understanding				Total				
	M	SD	t/F	p Scheffe	M	SD	t/F	p Scheffe	M	SD	t/F	p Scheffe	M	SD	t/F	p Scheffe	
Living arrangement	With family	7.06	1.21	2.87	.005	10.18	1.71	1.52	.132	14.36	1.67	2.89	.004	77.63	7.41	2.77	.006
	Other	6.25	0.97			9.55	2.06			13.15	2.32			72.60	9.02		
Grade	Sophomore	6.79	1.21	2.02	.136	10.14	1.87	2.12	.124	14.08	1.95	1.85	.161	76.31	8.13	4.82	.009 b>a,c
	Junior	7.25	1.25			10.48	1.60			14.63	1.67			79.81	7.39		
	Senior	6.90	1.17			9.78	1.75			14.00	1.70			75.40	7.19		
Monthly allowance (10 thousands won)	≤20	6.74	1.33	2.11	.124	9.89	1.79	3.19	.044 c>a	13.94	1.66	2.71	.069	75.93	7.51	4.77	.010 c>a,b
	21-30	7.10	1.11			10.06	1.76			14.24	1.76			76.60	7.99		
	31≤	7.21	1.10			10.92	1.53			14.92	2.15			81.38	6.57		
Friends	Few	6.77	1.09	1.94	.147	9.50	1.75	12.57	.000 c>a,b	13.83	1.60	3.85	.023 c>a	74.02	6.80	13.84	.000 c>a,b
	Average	7.04	1.28			10.26	1.64			14.33	1.87			77.95	7.75		
	Many	7.38	1.26			11.75	1.29			15.13	1.82			84.06	5.79		
Self-perception to health status	Weak	7.31	0.97	2.38	.096	9.25	1.81	5.83	.004 b,c>a	14.23	1.59	.50	.609	75.29	7.04	3.62	.029 c>a,b
	Normal	6.75	1.27			10.11	1.80			14.05	1.68			75.83	7.57		
	Good	7.00	1.24			10.50	1.59			14.36	1.99			78.88	7.97		

지각향성, 자기효능감, 자기에 및 대인관계 간의 상관관계

대인관계는 자기효능감의 하위영역인 성취자기효능감($r=.464, p<.001$), 사회자기효능감($r=.523, p<.001$)과 정상관관계가 나타났으며, 전체지각향성도 정상관관계($r=.490, p<.001$)가 있었다. 그 중 자기지각($r=.568, p<.001$), 타인지각($r=.302, p<.001$)과도 유의한 정상관관계가 나타났다.

자기에는 지각향성의 하위영역인 타인지각과 전체 지각향성과 유의한 역상관관계를 보였으며($r=-.316, p<.001$)($r=-.276, p<.001$), 자기효능감은 지각향성의 하위영역인 자기지각향성($r=.668, p<.001$), 타인지각향성($r=.386, p<.001$)과도 유의한 정상관관계를 나타내었다.

전체 지각향성은 모든 영역과 유의한 관계를 나타냄을 보였는데 지각향성은 성취자기효능감($r=.566, p<.001$)과 사회자기효

능감과의 관계($r=.432, p<.001$)에서도 유의한 정상관관계를 보였다<Table 4>.

대상자의 대인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대상자의 대인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알아보기 위하여 대인관계와 관련성 있는 변수인 지각향성, 자기효능감, 자기에를 독립변수로 하여 단계적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다음과 같다.

대인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지각향성의 하위영역인 자기지각향성(표준화회귀계수=.384, $p=.000$)과 자기효능감의 하위영역인 사회자기효능감(표준화회귀계수=.325, $p=.000$)이었고 이들 변수의 대인관계에 대한 설명력은 37.9%인 것으로 나타났다. 즉 간호대학생의 대인관계에 영향을 주는 가장 중요한 예측변수는 자기지각향성, 사회자기효능감이었으며 하지

<Table 4> Correlation among variables

(N=166)

Variables	NA	Self-efficacy				Interpersonal relationship	Perceptual orientation		
		1	2	3	4		5	6	7
Narcissism(NA)	1.000								
Self-efficacy	Achievement self-efficacy	-.104	1.000						
	Social self-efficacy	.015	.465***	1.000					
	Total	-.078	.954***	.709***	1.000				
Interpersonal relationship	.016	.464***	.523***	.547***	1.000				
Perceptual orientation	Others perception	-.316***	.390***	.225**	.386***	.302***	1.000		
	Self perception	-.125	.607***	.541***	.668***	.568***	.562***	1.000	
	Total	-.276***	.566***	.432***	.598***	.490***	.885***	.882***	1.000

* $p<.05$, ** $p<.01$, *** $p<.001$

1. narcissism, 2. achievement self-efficacy, 3. social self-efficacy, 4. total of self-efficacy, 5. interpersonal relationship
6. others perception, 7. self perception, 8. total of perceptual orientation

만 자기에는 유의한 영향요인으로 나타나지 않았다<Table 5>.

<Table 5> Influencing factors on interpersonal relationship (N=166)

Predictor variables	Beta	t	P
Self perception	.384	5.20	.000
Social self-efficacy	.325	4.41	.000
Adjusted R ² =.379			
F=71.79, p=.000			

논 의

D시의 일개 간호대학 학생을 대상으로 대인관계의 정도와 대인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파악하고자 시도된 본 연구의 논의는 다음과 같다.

본 연구에서 학생들의 가내 활동으로는 컴퓨터·인터넷 이용을 가장 많이 하며 여가 활동에 대한 정보획득 또한 인터넷을 통해 가장 많이 얻고 있었다. 이와 같은 결과는 현대의 정보화 추세를 반영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여가 활동의 종류로는 주로 혼자 하는 감상 및 관람 활동을 가장 많이 하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이는 집안에서의 활동에서처럼 다른 사람들과 어울리는 활동보다는 혼자 할 수 있는 활동이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어 개인주의화 되어가고 있는 현 추세를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대학시절은 원만하고 성숙한 대인관계를 형성하고 유지해 나가는 방법을 향상시켜 나갈 수 있는 연습 기간임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활동이 개인화됨으로써 이런 경험의 시간이 줄어들어(김기정, 이정희, 1999) 이로 인한 대인관계의 어려움이 증가하고 있다.

이는 어느 한 학생에게만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 대학상담실을 찾는 학생들의 대부분이 대인관계의 어려움을 주로 호소하고 있으며, 몇몇 대학의 신입생 실태조사 결과에서도 이러한 문제들은 쉽게 확인할 수 있다. 아주대의 경우는 입학 후 가장 해보고 싶은 것으로 인간관계를 꼽았으며, 숙명여대와 국민대의 경우 입학 후 예상되는 문제로 대인관계가 학업 및 학교생활문제 다음으로 높게 나타났다(김기정, 이정희, 1999). 부산대의 경우에 따르면, 전체 학생 중 절반이상의 학생들이 대인관계의 문제로 자주 고민한다고 응답하였다(부산대학교 학생생활연구소, 1993).

따라서 현시대가 개인화 추세로 대인관계가 결여되고 있음을 고려해 볼 때 타인과의 친밀감을 형성하고 성숙한 대인관계를 구축할 수 있는 전략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대인관계 정도는 77.01점으로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권윤희의 연구(2002)에서의 87.25나,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김성남의 연구(2004)에서의 85.58보다는 낮은 점수였다. 하위

영역별로는 만족감 13.93, 의사소통 10.24, 신뢰감 10.51, 친근감 11.02, 민감성 6.96, 개방성 10.11, 이해성 14.21로 측정되었다. 이 결과는 양명희(2002)의 일반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제시된 만족감 12.18, 신뢰감 7.00, 친근감 8.00, 민감성 5.45, 이해성 12.00의 결과나 간호사들을 대상으로 한 남은순(1995)의 연구에서의 만족감 13.64, 신뢰감 9.45, 친근감 10.82, 민감성 6.09, 이해성 13.73의 결과보다는 높은 점수를 나타내었다. 하지만 양명희(2002)의 의사소통 11.09, 개방성 11.82, 남은순(1995)의 의사소통 18.36, 개방성 13.55보다는 점수가 낮았는데 이는 본 연구에서는 의사소통 2문항과 개방성 1문항을 신뢰도 저해로 인해 제거하였음을 고려해볼 때 선행 연구들의 대인관계 정도와는 유사한 결과라 할 수 있다.

대인관계와 일반적 특성간의 관계에 있어서는 동거형태, 학년, 용돈정도, 친구의 수, 건강상태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가족과 함께 거주하며, 용돈과 친구는 많을수록, 건강상태가 좋을수록 대인관계 정도는 양호한 것으로 측정되었으며, 학년 중에는 3학년의 대인관계 정도가 가장 높게 나왔다. 이와 같은 결과는 학년별에 대인관계 정도에 대한 선행연구가 부족하여 비교할 수는 없으나 신체적이나 환경적인 안정상태가 대인관계 유지의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으며, 간호대학생들에게 있어서 2학년은 힘든 기초의학 및 전공공부가 본격적으로 시작되고 잦은 재시로 인해 스트레스가 많기 때문이며 4학년 경우는 졸업 및 취업준비로 인해 상대적으로 대인관계의 기회가 줄어들기 때문인 것으로 보여 진다.

일반적인 특성과 대인관계 하위영역간의 관계에 있어 친구의 수는 만족감, 의사소통, 친밀감, 개방성, 이해성 영역에 있어서 가장 큰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작용하여, 친구의 수가 많을수록 만족감, 의사소통, 친밀감, 개방성, 이해성의 정도가 높다는 결과가 나타났다. 이는 간호대학생들에게 있어서 친밀한 친구의 존재가 대인관계의 필수조건임을 나타내고 있어 학생들의 바람직한 교우관계 형성을 도울 때 대인관계 능력도 향상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되어진다. 이외에 민감성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으로는 동거형태로 가족과 함께 살고 있는 학생이 혼자 생활하고 있는 학생들에 비해 민감성 정도가 더 높게 나왔다. 따라서 가족과 함께 사는 학생들이 혼자 사는 학생들에 비해 주위에 있는 다른 사람의 욕구를 깨닫는 정도가 높음을 알 수 있었다.

대상자의 대인관계는 지각향성 및 자기효능감과 정상관관계를 나타내었다. 이는 지각향성점수가 높은 대학생일수록 대인관계가 원만하다는 이경화와 안범희의 연구와 같은 결과였으며(전진이, 1997에서 재인용), 자기효능감이 높은 집단에서 대 학생활적응을 더 잘 하고 있다는 이윤조의 연구(2002)나 타인에게 영향력을 발휘하는 사람은 일반적으로 자아와 타인에

대해 긍정적인 지각을 가지고 있다는 Bass, McGehee, Hawkins, Young과 Gebel의 연구 결과와도 맥락을 같이하고 있다(전진이, 1997에서 재인용).

본 연구에서의 자기애는 전체 지각향성과 하위영역 중 타인지각향성 간에서 역상관관계를 나타내었으며, 이는 자기애 정도가 강할수록 타인에 대해 긍정적으로 지각하는 능력이 저하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자기애는 자기효능감이나 대인관계와는 상관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기애적 성격과 관련된 선행연구들에는 자기애와 자기효능감과의 관계에 있어서 서로 역상관관계가 있었다고 한 연구(박혜진, 2003)와, 자기애적 성격특성과 자기효능감 및 대학생활적응과는 서로 정적인 상관관계가 있었다는 이윤조의 연구(2002), 자기애적 성격을 지닌 개인일수록 자신의 사회적 역할이나 성격특성, 행동, 선호성 등에 있어서 자신의 측면들을 보다 다양하고 분명하게 인지하며 행동한다고 주장한 김윤주와 한성열의 연구(1993)에서처럼 자기애에 대한 최근 견해는 자기애가 두 가지 측면(긍정적인 측면과 부정적인 측면)으로 구성되어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자기애의 긍정적인 측면은 자존감과 정적으로 상관되며, 외향적이고 적응적인 특성들(창조성, 사교성, 성취 욕구, 낙관주의 등)과 정적인 상관을 나타낸다. 반면 자기애의 부정적인 측면은 자존감과 부적 상관을 이루고, 긴장과 불안, 비판주의와는 정적 상관을 이루며 방어적인 대인관계를 맺게 하는 경향이 있다(김지연, 1997). 이처럼 자기애적 성격에 대해 성격장어만 보려는 이론 위주의 병리적 견해보다는 일반인에게 자주 나타나는 정상적인 성격특성이라는 관점(Emmons, 1987)으로 바라보고 자신의 자기애적 성격 중 긍정적인 특성들을 강화시킨다면 대인관계에 있어서도 좀 더 성숙하고 원만한 관계를 유지시킬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이와 같은 관련성들을 기초로 본 연구 대상자의 대인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알아보기 위해 단계적 다중 회귀 분석을 한 결과, 간호대학생의 대인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가장 중요한 예측변수는 자기지각향성과 사회자기효능감이었고 이들 변수의 대인관계에 대한 설명력은 37.9%이었으며, 자기애는 유의한 영향요인으로 나타나지 않았다. 자이에 대해 긍정적인 지각을 많이 가지는 경우 이는 대인관계문제를 포함한 생활 속의 여러 문제들에 대처하기 위한 훌륭한 자원이 된다. 그러므로 본 연구는 자신에 대한 정확하고 긍정적인 인식이 곧 타인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고 서로를 이해할 수 있는 기본이 됨을 제시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 대인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두 번째로 설명력이 높은 요인은 사회자기효능감이었다. 이는 대인적이고 사회적인 자기 효능감이 높을수록 대학생활에 있어서 좀더 원만한 대인관계를 유지할 수 있어 대학생활에의 사회적 적응 능력을 높일 수 있다는 이윤조의 연구결과(2002)와 일치하였다.

이와 같은 결과로 볼 때 원만하고 성숙한 대인관계를 형성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자기 자신에 대해 긍정적으로 지각하고 타인이나 사회적인 관계에서 정확하게 판단하고 행동하는 능력이 무엇보다 중요함을 제시하고 있다. 따라서 간호대학생들의 대인관계를 향상시키기 위해 지각향성과 자기효능감을 증진시킬 수 있는 방안이 요구된다.

결론 및 제언

본 연구의 목적은 D시 일개 대학 간호대학생들을 대상으로 대인관계의 정도와 대인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기 위함이다.

자료수집은 2005년 10월 8일부터 2006년 6월 15일까지 일개 간호대학 학생 중 본 연구의 참여를 동의한 166명이었다.

연구도구는 최정훈(1979)의 표준화된 학생용 지각향성 측정 도구, 홍혜영(1995)의 자기효능감 측정 도구, 황순택(1995)의 자기애적 성격장애 측정 도구와 양명희(2002)가 수정한 대인관계 측정 도구를 본 연구자가 수정 보완하여 사용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SPSS WIN 12.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평균, 표준편차, 빈도 및 백분율 등의 기술통계와 t-test, one-way ANOVA, Scheffe' test,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 및 Stepwise multiple regression으로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 대인관계는 평균이 77.01점이었으며, 하위영역별로는 만족감 13.93, 의사소통 10.24, 신뢰감 10.51, 친근감 11.02, 민감성 6.96, 개방성 10.11, 이해성 14.21로 나타났다.
- 일반적 특성별 대인관계는 친구 수, 학년, 용돈, 건강상태, 동거형태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하위영역인 만족감에서는 친구 수, 건강상태, 의사소통에서는 친구 수, 학년에서 유의하게 차이를 보였다. 친근감은 친구 수, 용돈에서, 민감성은 동거형태, 개방성은 친구 수, 건강상태, 용돈에서, 이해성은 친구 수, 동거형태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 대인관계는 자기효능의 하위 영역인 성취자기효능감, 사회 자기효능감과 정상관관계가 나타났으며, 지각향성의 하위 영역인 자기지각, 타인지각과도 정상관관계가 나타났다. 자기애는 전체 지각향성과 하위영역인 타인지각향성과 역상관관계였으며, 자기지각향성은 자기애를 제외한 모든 영역과 정상관관계를 나타내었다.
- 대인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자기지각향성과 사회자기효능감이었고 이들 변수의 대인관계에 대한 설명력은 37.9%이었다. 특히 간호대학생의 대인관계에 영향을 주는 가장 중요한 예측변수는 자기지각향성, 사회자기효능감이었다.

본 연구 결과와 논의를 토대로 다음과 같이 제언한다.

- 연구결과를 일반화하기 위한 반복연구가 필요하다.
- 간호대학생들의 효율적인 대인관계를 위해 자가지각향성과 사회자기효능감을 향상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 할 필요성이 있다.

참고문헌

권석만 (1995). 대학생의 대인관계 부적응에 대한 인지-행동적 설명모형. *학생연구*, 30(1), 서울대학교 학생생활연구소, 38-63.

권윤희 (2002). *MBTI를 활용한 성장프로그램이 간호대학생의 대인관계 및 진로정체감에 미치는 효과*. 계명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대구.

김기정, 이정희 (1999). 대학생들을 위한 대인관계향상 집단상담의 효과 연구. *학생생활연구*, 17, 17-37.

김성남 (2004). *에너지그램 집단상담프로그램이 간호대학생의 자아정체감과 대인관계에 미치는 효과*. 이화여자대학교 임상보건과학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서울.

김윤주, 한성열 (1993). 자기에적 성격과 자기복합성의 관련성에 대한 연구. *한국심리학회지(사회)*, 7(1), 28-36.

김지연 (1997). *자기에적 성격특성과 대인관계 유형 및 대인관계 적절성간의 관계*. 전북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전주.

남은순 (1995). *집단상담을 통한 인간관계훈련이 간호사들의 자각향성과 인간관계에 미치는 영향*. 울산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서울.

도복늬 외 (1997). *인간관계와 커뮤니케이션* 정담, 서울.

문선모 (1980). 인간관계훈련 집단상담의 효과에 관한 일 연구. *경상대학교 논문집(인문, 사회)*, 19, 195-204, 전주.

박혜진 (2003). *자기에, 자기효능감, 자의식 및 우울간의 관계*. 아주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수원.

부산대학교 학생생활연구소 (1993). 1993학년도 신입생 실태조사, *부산대학교학생생활연구소*, 1-86.

서봉연, 황상인, 김정옥 (1994). 사회인의 적응능력의 향상을 위한 연구 : 대인관계향상프로그램을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학생생활연구*, 29(1), 69-109.

양명희 (2002). *사이코드라마가 대학생의 대인관계에 미치는 효과*.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제주.

이윤조 (2002). *자기에적 성격특성과 자기효능감 및 대학생활적응과의 관계*. 홍익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서울.

이정연 (2000). *대학생의 자아존중감과 성의식 및 대인관계간의 상관연구*. 강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춘천.

진은희 (1997). 동아리활동과 대인관계 변화에 대한 연구. *광주보건전문대학 논문집*, 22, 401-418, 광주.

진진이 (1997). *조력기술훈련이 대학생의 의사소통, 인간관계, 사회적 불안 및 자각향성에 미치는 효과*. 동아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부산.

조희 (1992). 간호대학생들의 정신간호실습 스트레스에 관한 연구. *적십자간호전문대학논문집*, 14, 64-78.

최정훈 (1979). *자각향성검사 실시요강*. 서울 : 코리안테스팅.

황순택 (1995). *전형성 평정에 의한 성격장애 진단준거 개발*. 연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서울.

홍혜영 (1995). *완벽주의 성향, 자기효능감, 우울과의 관계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서울.

American Psychiatric Association (1994). *Diagnostic and Statistical Manual of Mental Disorders*. 4th Ed., Washington D. C.

Bandura, A. (1977). Self-efficacy : Toward a unifying theory of behavioral change. *Cognit Ther Res*, 1, 287-310.

Bogart, L. M., Benetsch, E. G., & Pavlovic, J. D., (2004). Feeling superior but not threatened: The relation of narcissism to social comparison. *Basic Appl Soc Psych*, 26, 35-44.

Davis, C., Claridge, G., & Brewer, H. (1996). The two faces of narcissism: Personality dynamics of body esteem. *J Soc Clini Psychol*, 15(2), 153-166.

Emmons, R. A. (1987). Narcissism : Theory and measurement. *J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2(1), 11-17.

Heider, F. (1964). *The psychology of interpersonal relations*, New York.

Kelly, B. (1962). The professional self-concept of nursing undergraduates and their perception of influential forces. *J Nurs Educ*, 31, 121-125.

Kohut, H. (1984). *How does analysis cure?*. Chicago : The University of Chicargo Press.

Raskin, R., & Shaw, R. (1988). Narcissism and the use of personal pronouns. *J Pers*, 56(2), 393-404.

The Influencing Factors of Interpersonal Relationship in Nursing Students

Kim, Hee Sook¹⁾ · Park, Wan Ju²⁾ · Ha, Tae Hi²⁾

1) Assistant Professor, College of Nursing, Kyungpook National University

2) Doctoral Student, College of Nursing, Kyungpook National University

Purpose: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influencing factors of interpersonal relationship in nursing college students for effective learning ability and teaching strategy. **Method:** In order to get the data by self-questionnaire, 166 subjects were selected. The instruments for this study were Preceptual Orientation Scale, Self-Efficacy Scale, Narcissistic Personality Disorder Scale, and Interpersonal Relationship Scale. The data was analyzed by percentage, mean, standard deviation, t-test, one-way ANOVA, Scheffe' test,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 and Stepwise multiple regression using SPSS 12.0 program. **Result:** The main factors that affect interpersonal relationship were self-perception and social-efficacy. These variables were account for 37.9% of interpersonal relationship. The significant influencing factors on interpersonal relationship were self-perception, social-efficacy. **Conclusion:** It is necessary to develop a strategy to get positive perceptual orientation and successful interpersonal relationship for nursing college students by further studies with small group program for the best result.

Key words : Relationship, Nursing student

• Address reprint requests to : Kim, Hee Sook

College of Nursing, Kyungpook National University

101, Dongin-dong, Jung-gu, Daegu city 700-422, Korea.

Tel: 82-55-420-4927 Fax: 82-55-422-4926 E-mail: hskim8879@knu.ac.kr